



1 여충사 2 윤관 장군 청동상 3 윤관 장군 묘

여진 정벌 공 세운 고려 최고 공신 윤관 장군의 묘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는 고려 예종 때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 정벌의 공을 세운 윤관 장군의 묘가 있다.

고려 시대 문신이자 장군인 윤관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동현(同玄),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고려 문종 때 과거에 급제했고, 문관이지만 군사를 잘 다스려 북쪽 오랑캐인 여진족을 정벌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을 침범해 백성들을 괴롭히자 1104년(숙종9) 동북면행영도통(東北面行營都統)이 돼 여진족 정벌을 위해 북방에 진출했으나 강한 기병(騎兵)을 이끄는 여진에 패했다. 이후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이라는 특수부대를 만들어 훈련한 후, 1107년(예종2) 동북 지역으로 진출해 여진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이때 차지한 지역에 9개의 성을 쌓고(동북 9성) 장수들을 보냈으며 고려인들이 살 수 있도록 했다.

문(文)과 무(武)를 겸한 윤관은 사후 1130년(인종8) 예종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되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윤관의 묘는 오래전 실전됐지만, 그 못자리는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왔다고 한다. 그런데 윤관의 못자리에 심지원의 묘가 조성돼, 윤관의 후손들은 옛 비석 조각을 증거로 심지원의 후손들과 못자리 소송을 벌이게 됐다. 1764년(영조40) 두 집안의 못자리 소송이 격해지자 영조는 양쪽을 모두 만류한 뒤 다툼을 금하게 하고 똑같이 치제(致祭) 했다고 한다. 치제는 임금이 제물과 제문을 보내 죽은 신하를 제사 지내던 일을 말한다.

사적 제323호인 윤관 장군 묘의 묘역은 전체 규모가 크고 웅장하며, 무덤과 다양한 석물이 자리하고 있다. 무덤의 바로 앞 정면에는 상석이 놓여 있고, 왼쪽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비는 1766년(영조 42)에 세워진 것으로 묘소를 찾게 된 경위가 기록됐다. 그 아래에는 망주석과 장명등, 동자상, 무인석, 문인석, 석양, 석마 등이 배치됐다. 묘역의 아래에는 윤관 장군의 영정이 봉안된 여충사(麗忠祠)를 비롯해 신도비, 재실 등이 있어 윤관 장군을 추모하는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전시관도 마련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❶



파주의 빛나는 문화유산

사적 제 323호 파주 윤관장군묘

